



푸른 창공으로 훨~훨 가을 분위기가 완연한 20일 많은 해양스포츠인들이 제주시 구좌읍 중달리 해안을 찾아 카이트서핑과 윈드서핑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내 렌터카 1500대 감축 가능할까

도, 렌터카 적정 공급대수 2만8000대로 확정 3300대 상향 조정... 등록제한 기간도 2년 연장 성수기 차량 부족... 자율감차 유도 현실과 괴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렌터카 적정 공급 대수를 2만8300대로 확정하고 앞으로 1500대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2018년 산정한 렌터카 적정 공급 대수 2만5000대보다 3300대 늘어난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20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올해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2년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는 2만8300대로 현재 등록대수(2만

9800대)기준보다 1500대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등록제한사항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제한되며 제주도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 등의 제한도 포함된다. 다만, 지난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차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등록제한 예외사유도 됐다.

문제는 렌터카 1500대 자율 감축

여부이다.

제주도는 노후차 감차 등을 통해 렌터카 수급량을 조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업체 관계자는 "성수기 때는 차가 없어 비싼 요금을 받더라도 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속에서 감차 유도를 유도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면 적정 대수가 3만654대로 나왔는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적정 공급 대수를 정한 것은 업계가 처한 현실을 미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제주자치도가 2018년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앞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내 렌터카 적정 운영 대수는 2만5000대로 나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당시 3만 2000대의 수준이던 렌터카를 3년 동안 7000대 줄이기로 했으며, 이후 수정을 거쳐 감차목표를 6111대로 수정, 변경했으나 3800대 감차에 그쳤다.

제주도는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법령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 감차에 나설 계획이며, 도내 렌터카 회사와 협의를 거쳐 감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현 제주자치도 교통항공국장장은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자율지도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호객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태풍 지나고 나니 산천엔 어느새 가을

태풍이 지나간 제주에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다.

2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제주 25.3℃,

서귀포 24.6℃, 성산 24.7℃, 고산 26.8℃를 기록했다. 서귀포 34.8℃ 등 전날에 비해 기온이 크게 내려간 것이다.

기온이 떨어진 이유는 19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을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9℃ 내외, 낮 최고기온은 24~25℃이며, 22일도 아침 최저기온 19~20℃, 낮 최고기온은 25~26℃로 예상됐다.

한편 21일까지 제주 해상에는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된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해녀 항일운동 90주년 기념 도교육청, 초등용 자료 제작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해녀 항일운동 90주년을 기념해 초등 제주 항일운동 교육자료 '제주 3대 항일운동 이야기'를 내놓았다. 4~6학년 사회, 국어, 도덕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제주 항일운동 역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직 초등교사들이 개발·심화위원으로 참여했다.

'제주 3대 항일운동 이야기'는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1919년 조천 만세운동, 1932년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말한다.

집필진은 해당 항일운동의 의미, 인물, 관련 장소 등 상세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쓰며 읽기 자료, 학생 탐구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이름으로 역사 연대표를 실어 이해를 돕고 있다. 도교육청은 총 3000부를 발행해 각급 학교에 배부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자료집이 올라있다. 진선희기자

'서부중' 토지 매입 난항... 2027년 개교 난망

전체 사유지 6필지 중 2필지 보상 협의 진척 없어 '연내 부지 사들여야 연장된 2027년에 개교 가능'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2022~2027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을 확정하면서 가장 '서부중학교' 개교 시기를 종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늦췄지만 그마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교육감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가액보다 높게 부르면서 보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중은 2018년 3월 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이 수립되면서 구체화됐다. 현재 교육환경평가, 재정투자 심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거쳐 부지 매입 단계에 있지만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토지 보상 협의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학교 용지는 제주시 외도1동 54-5번지 일원 사유지 6필지로 전체 면적은 2만6020㎡ 규모다. 도교육청은 토지 매입비 104억9000만원을 확보해 보상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현재까지 전체의 66.1%인 2필지 1만7214㎡의 땅을 매입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도교육청은 토지 매입 지연 등을 들며 지난 1일 서부중 개교를 2027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당 연도에 학교 문을 여는 것도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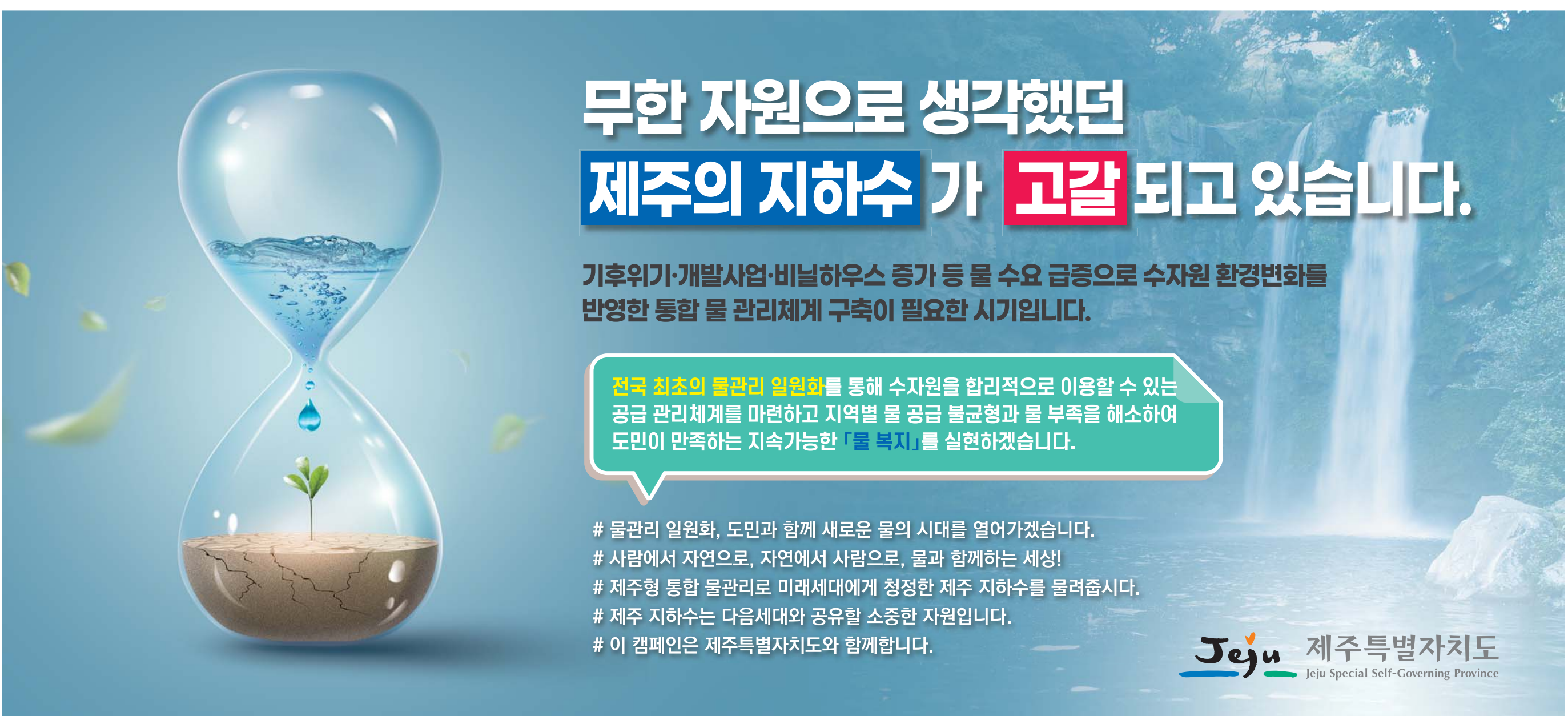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올해 안에 토지를 매입해야 2027년에 개교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2028년까지 가야하는데, 한없이 미룰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하루 빨리 사서 짓는 방법 외에는 없다. 아

직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육감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학교를 신설할 때 초·중학교를 함께 설립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서부중은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과밀 해소와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투자심사 후 3년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재심사를 받을 때는 완성학교 규모가 1~3학년 30학급, 학생 수 총 843명으로 제시됐다. 당초 설립계획 36학급 1080명보다 감소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서부중 개교가 늦어짐에 따라 중학교 학생 수가 최대가 되는 2025년까지 서부지역 중학교 4개교에 총 17학급을 증설해 학생을 수용하기로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독자제보 ☎750-2114



무한 자원으로 생각했던 제주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개발사업·비닐하우스 증가 등 물 수요 급증으로 수자원 환경변화를 반영한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국 최초의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급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물 공급 불균형과 물 부족을 해소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 물관리 일원화, 도민과 함께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 사람에서 자연으로, 자연에서 사람으로, 물과 함께하는 세상!
- # 제주형 통합 물관리로 미래세대에게 청정한 제주 지하수를 물려줍니다.
- # 제주 지하수는 다음세대와 공유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 #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